

오조 하쿠산 신사 (안내판)

계잔부쓰: 산에서 내려온 불상

오조 하쿠산 신사

이시카와현 지정 유형문화재

이 작은 신사에 보관된 몇 개의 불상과 좋은 옛날에 하쿠산 젠조도 중 하나인 가가 젠조도를 따라 세워진 여러 작은 절에 안치되어 있던 것입니다. 8 세기부터 신성한 곳으로 여겨져온 하쿠산은 이후 불교, 신도, 산악신앙을 융합한 수험도를 중심으로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하지만 일본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근대화가 급속하게 진행된 메이지시대(1868-1912 년)초기 신정부는 신도의 국교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밀접한 관계였던 신도와 불교를 분리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사원과 불상이 파괴되었고, 하쿠산의 불상도 파괴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현지 사람들은 1874 년에 친숙해진 불상을 몰래 회수하여 하쿠산에서 옮겨왔습니다. 불상은 오조 하쿠산 신사에 숨겨졌고, 지금도 이 장소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불상은 애정을 담아 ‘계잔부쓰’(산에서 내려온 불상)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2 개는 1216 년에 만들어진 목조 아미타여래 입상과 1636 년에 만들어진 목조 십일면 관음 좌상입니다. 그 외에 동조 지장보살 입상(1700 년), 동제 부동명왕 입상(1702 년) 및 부동명왕의 협시(부처를 좌우에서 모시는 상)인 금강동자상, 여러 개의 소형 목조 지장보살 입상이 있습니다. 경종도 1 개 보관되어 있습니다.

하쿠산시